구정물을 맑은 물로 그냥 대치해서 쓰라

☞ A17면에서 계속

바깥으로만 끄달린 사람은 그 안에서, 그 차안(此岸)에서, 즉 차단된 속에서, 감옥 아닌 감옥 속에 갇혀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세생생에. 그 의식, 관습, 인과에 그냥 매달려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우리가 개구리가 된다면 개구리로 살던 습이 그냥 누적이 돼 가지고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개구리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되 모든 것은 내 마음의 용광로에 다 놓으십시오. 이 줄은 용광로와 같고 바로 자가발전소와 같고 불바퀴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모든 것을 거기다가 맡겨 놓기만 하면 모든 거는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 놓고 맡길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것이 자기 싹의 자기 뿌리라는 것을 아셨으면 무조건 믿어야죠. 뭘 누가 믿어라, 말아라 할 때까지 있어요?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올리겠습니다. 금강경에 "응무소주(應無所住) 이생기심(而生其心)"이란 사구게가 있는데, 머무르는 바 없이 생각하기 이전의 마음이 소소영영한 마음자리인가 합니다. 한생각 하기 이전의 마음이 한마음 주인공이 나투는 자리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 자리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큰스님 지금까지 한 말이나 똑같습니다. 마음 내기 이전은 마음의 내 선장으로 섬기고, 마음 내는 것은 바로 중생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다스려서 몰락 놓을 수만 있다면, 몰락 놓되 그냥 놓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 놓고, 돌려서 놓고, 구정물을 새 물로 만들어서 놓고, 그러니까 "그 구정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다." 이런 말도 경에 많이 있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 가르치면 더디니까 아예, "그 구정물을 맑은 물로 그냥 대치해서 써라!" 이겁니다. 그 과정을 다 새삼스럽게 거치고 거쳐서 이렇게 한다면 언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집어먹고, 그대로 맛을 알고, 그대로 행하라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생각 내기 이전이 자기 뿌리니까요. 그대로 믿고, 양면을 다 거기다 믿고 놓으면 그 가운데서 아주 샘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 샘물이라는 것은 만법의 근본을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법이며 또 생활인 것입니다.

질문자1(남) 스님, 감사합니다.

질문자2(남) 저는 마음공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큰스님 한 가지씩만 하세요.

질문자2(남) 불법의 유식론(唯識論)에 보면 인간의 인식은 대개 열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다섯 가지는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다섯 가지는 정신적으로 인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 범인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안식(眼識), 이식(耳識), 비식(鼻識), 설식(舌識), 신식(身識), 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아는 의식(意識)입니다. 그러나 여섯 가지는 보통 범인들이 느끼는데 일곱 번째에서 열 번째 되는 거는 우리 범인들이 일반적인 공부를 해서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나 보면 이러한 칠식(七識), 팔식(八識), 구식(九識), 십식(十識)에 도전하는 많은 불자들이 있어 왔고, 또 일생을 바치는 고승 대덕들도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적인 인물 두어 사람에 대해서 조사어록(祖師語錄)에 나오는 것 한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달마어록(達摩語錄)에 보면 달마 조사와 무제의 대화에서 "심심상련(心心相連), 교외별전(敎外別傳), 이심전심(以心傳心)"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제 몇 식(識)에 해당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스님 허허허…. 항상 여러분한테 이심전심이라는 것을 얘기해 드리죠. 그건 열 가지든 백 가지든, 만 가지든 천 가지든 그건 하나로만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로만! 내 진실한 근본에서만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체 만물이, 새는 새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말과 행이 그대로 이렇게, 뜻과 통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체가 통하죠. 전체가 통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심전심으로 사는 거죠, 그대로.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다 실현돼 있어요, 아주.

그런데 정신세계에서 이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육감으로도 이렇게 통신이 오죠. 사람을 벌써 보기만 해도 '아,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구나! 아, 저 사람은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뭐가 좀 어떻구나, 어떻구나.' 하는 거를 대략 짐작하죠.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이 마음공부 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대로 마음과 마음이 둘이 아닌 까닭에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심전심이죠. 이 마음과, 즉 말하자면 영과 영이 한데 합쳐지면 그대로 없으면서, 맑은 물이면서도 그것은 둘이 아니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를 알고 있다. 꽃을 볼 때에도 이심전심이 되죠. "야, 너는 왜 낮이면 피고 밤이면 오그라드느냐?" 하고 물어보세요. 반드시 대답이 있을 겁니다. 또 "왜 밤에는 피고 낮에는 오그라드느냐?" 하고 물어보세요. 반드시 회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심전심이라는 것은 비밀의 행이면서도 아주 묘하고 광대무변한 법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자기가 깨달아야만이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버선목이라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부처님처럼 금방 이 자리에서 요 문 바깥을 나갔다 들어왔다, 또 지구를 한 바퀴 돌아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모르시죠? 또 물속의 생물들을 다 만나고 왔다, 한 찰나에 만나고 왔다 하더라도 모르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심전심입니다. 그러니까 어서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이심전심의 그 묘한 도리를 체득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심전심이라는 도리는 자기가 스스로 체험해서 알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아마. 그게 얼른 쉽게 말해서 "이심전심으로 통해서 천백억 화신이 나투면서 각계각층의 중생들에게 다응(應)하시느니라!" 이렇게 했을 때, 이심전심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질문자2(남) 사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면, 칠식은 말나식(末那識), 팔식은 아뢰야식(阿賴耶識), 구식은 아마라식(阿摩羅識), 십식은 백정식(白淨識)인데, 어느 책에서 보니까 "백정식 정도 되면 생사 거래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이런 구절이….

큰스님 백정식은요, 그 의식까지도 없어야 백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이름해서. 아뢰야식이니 뭐, 이것이 아주 몰락 다 없어야 백정식이죠. 그래서 백정식이라는 건 "아주 없다"는 뜻입니다. 아주 깨끗한 무(無)가 돼야, 이것이 무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불러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말고 그대로, 모르는 대로 그대로, (염주를 들어 보이시며) 이 알은 반드시 줄에다가 다 놔라 이겁니다, 의식까지도. 지금 직행으로 들어가는 코스지, 거쳐서 계단을 밟고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질문자2(남)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성인 원효 대사의 어록에 보면 "심생즉종종기 심멸즉종종멸, 일체유심 심외무법 만법유심(心生卽種種起 心滅卽種種滅 一切唯心 心外無法 萬法唯心), 우주 일체는 오직 마음에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식에 해당되는 건지요?

큰스님 식이고 나발이고요, 허허허…, 심생즉종종기는, 이거 보세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정신계와 물질계, 이런 소리나 똑같습니다, 그 소리가. 지금 아주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 "염주알과 염주줄이 둘이 아니고 그냥 일심으로써 통하느니라." 이러는 거와 똑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둘이 아닌 도리가 바로 네 마음에 있느니라." 이런 소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내야 되느냐? 어떻게 내느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내기 이전은 항시 좋고 나쁜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을 내되 엉망진창으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주어진 대로 그 마음을 내지를 말라는 거죠. 지금 중생 의식들이 이 몸 안에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다 스려서 이 헤아릴 수 없는 생명체들이 자기 선장에게 한마음으로 따라 줄 때까지 수행을 시켜라 이겁니다.

질문자2(남)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그 마음공부를 하는데 원리적인 방법과 실천적인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큰스님 아, 원리적인 방법과 실질적인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원리가 있음으로써 실천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원리가 없는데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원리가 있음으로써 망하게도 할 수가 있고 좋게 되게끔 실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 다스려서 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신다면 될 수 있는 거죠.

질문자2(남) 잘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본인은 '처처불법(處處佛法) 사사불공(事事佛供)'을 신행 신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생활이 윤택해지고 참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뭐, 달리 생각할 것도 없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시죠? 그러니까 처처불(處處佛)이에요, 처처불! 즉 말하자면 사무 사유(四無四有), 이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나 보이는 세계나 그 생명이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처불이죠. 그래서 처처불이며 사사불공이라고 했죠? 그 불공이라고 한 자체가 바로 처처불이기 때문에 생활 자체가 그냥, 움죽거리는 그 자체가 바로 공(空)했다는 겁니다. 찰나찰나 공했다 이겁니다. 즉 말하자면,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선생님이 나를 보고 있었는데 금방 돌아서면 저기 보고, 금방 돌아서면 저기 생각하고, 금방 돌아서면 딴 거 보고 이러죠? 내가 항상 말을 하죠? 가정에 들어가도 "여보!" 하면 남편이 됐다가, 금방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됐다가, "얘, 아무개야!" 그러면 아들이 됐다가, "여보게!" 하면 사위가 됐다가, "형님!" 하면 형님이 됐다가 이렇게 그냥 찰나찰나 바뀌지 않습니까? 생활도, 일체가 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육체 안에 들어 있는 생명체들도 작용하는 것이 전부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땐 이런 게 들어오고, 어떤 땐 저런 게 들어오고, 어떤 땐 딱딱한 게 들어오고, 어떤 땐 물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작용하는 것도 사사건건이 달라요, 이건. 들어오는 대로 사사건건이 다르니까 어떤 건 이렇게 내보내고, 어떤 건 저리로 내보내고, 어떤 건 모자라는 대로 이렇게 메꿔서 내보내고, 그러다가 고장이 나면 메꿀 수가 없게 되는 이치가 되기 때문에 병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누덕누덕 붙여 가지고 긁어서 외려 부스럼을 만들지 마세요. "생명이 있는 거는 일체가 다, 풀 한 포기도 불(佛)이다. 처처불이다! 또 일체가 다, 마음으로 통하고 뜻으로 통하고 말로 통하는 게 교(敎)다. 그런데 그 일상생활 자체가 그대로 불교요, 삼천대천세계가 공했다!" 했습니다. "불공" 했는데 이걸 "평등불공!"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주 간편합니다. 그래서 공했다는 거예요. 공했으니 그 의의만 떼어 놓고서 자기가 깨달으면 그 뜻을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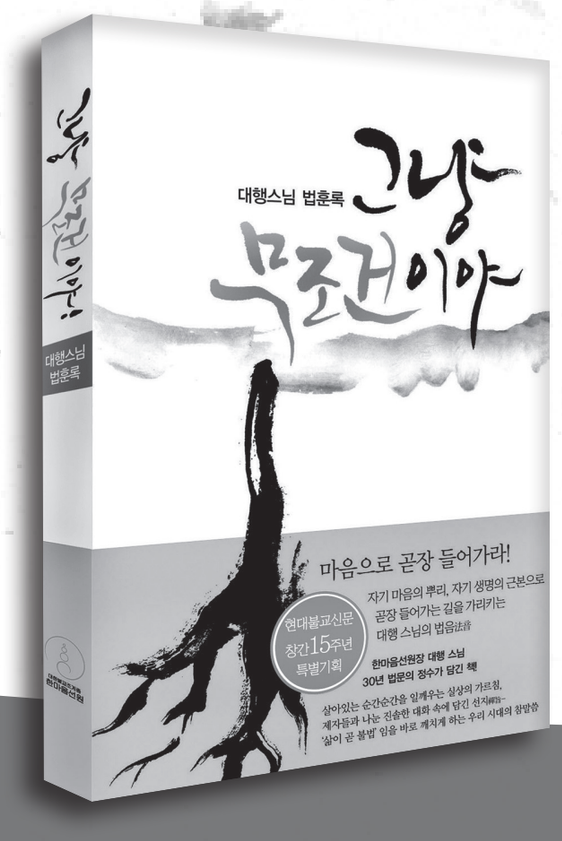
그러니까 이렇게 간편하게 배워야죠. 너무 어렵게 배우면 어깨가 무거워서 더 안 돼요. 왜, 집안에서도 이런 게 있죠. 너무 닥치는 게 많아 가지고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을 때에는 어깨가 무겁고, 그래서 그냥 "어휴! 멋대로 돼라." 이러고 내팽개쳐지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무겁게 만들지 마세요. 무겁게 만들면 오히려 불성이 가려집니다. 발견이 돼야 할 텐데 오히려 척척 붙어서 눈을 가려 놔서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떼야 될 텐데 외려 붙이면 됩니까?

(다음 호에 계속)

> 무조건 자기 뿌리는 자기 싹을 지니고 있으니
> 누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위 법문은 1994년 4월 3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